

住居의意味

李 弼 遠
建設部住宅課

1. 住居-住居空間으로서 住宅이라는 物理的 概念

人間의 活動中에서 住活動을 意味하는 抽象的 概念과 家庭이란 말처럼 住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住生活를 동시에 包含하는 개념으로 理解되어 질 수 있다. 또한 擴張하면 住居環境을 포함하는 개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住居의 本質에 接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概念에서 출발하여 住居의 意味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意味論은 어떤 形態의 具體的인 환경 중에서 존재하고 있는 狀況의 해석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包括的으로 生態論의 一部를 이룬다. 이러한 意味論은 存在하게 하는 方法을 提供하는 構成論, 形態論과 달리 存在하는 方法-生存을 提供한다.

2. 住居空間-人間 存在의 本質的 根據 데카르트에 의하면 物質은 明證性으로 볼때 색깔 맛, 냄새 등 二次的 性質은 애매한 知覺에 불과하며 그 직접적 명증성은 그 크기를 가진 延長이라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延長은 物體의 美在의 事性이다. 여기서 出發하면 論理的으로 우리를 둘러싼 延長은 또한 物質的인 것이다. 그러므로 空間 속에 真空은 없으며 世界는 物質로 가득찬 宇宙的 連統體이며 物體의 運動은 인접한 物質의 空間의 移動이라고 볼 수 있다. 바꿔말하면 空間은 物質이 存在하는 집이다. 따라서 人間의 肉體라는 物質 역시 空間속에서만 존재가 可能하다.

그러나 實存主義者들은 人間存在는 時間과의 關係 아래서 파악하여 時間속에서만 可能的 存在임을 내세우

기도 하지만 勿論 인간은 物質이 일정한 空間 속에서 延長性을 갖듯이 그런 形式으로 空間속에서만 存在하는 것은 아니나 人間의 삶은 特殊한 構造의 空間안에서의 움직임에 틀림없다. 이 空間은 物質이 존재하는 공간처럼 幾何學的 同質空間이 아니고, 認識의 主體로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人間이 있는 一定한 中心點에서 뻗어가는 特殊한 構造를 가진다. 이러한 空間은 窓, 門, 大門, 街路, 都市를 통해서 뻗어나간다. 이러한 中心點이 바로 집-住居인 것이다. 그러므로 空間으로서 住居는 人間存在의 本質的 根據이다. 그것은 삶의 中心으로 人間性의 요람이며 價值觀 形成과 社會的 行動의 基準設定의 機能을 가진다.

우리 人間은 內的으로 認識할 때 時間과 함께 外的으로 認識할 때 空間에 감싸여진 存在이다. 따라서 人間으로 存在한다는 것은 一定한 空間-住居空間을 갖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3. 住居 그 社會性

住宅이란 일반적으로 人間의 일정한 居處이며 內面的인 것이며 個人的인 家庭生活의 터전이며 安息處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때 個人으로서의 住行動은 대사, 생식의 生理的 活動에서부터 노동, 친교, 집회의 社會的 活動으로 擴大되고 더 나아가 오락, 독서, 창작, 예술의 文化的 活動으로 發展하여 이루어지면서 社會적인 의미가 매두되는데 이것은 자손의 保育 및 자손의 社會적행동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기능을 社會에 발휘

하면 더욱 사회적 의미가 중요하게 된다. 주택에 대하여 인간은 生理的 要求뿐 아니라 社会的, 文化的 要求까지를 하게 된다.

물론 社会는 住宅에 대하여 物的, 法的, 經濟的 또는 慣習的 要求를 하게 된다. 住居의 社会的 意味는 個人이 固有性있는 美存的 存在임에 비하여 社会化되면 固有한 生活樣式을 갖는 것이 아닌 階層으로서 擬制的 存在인 서민, 大衆의 問題로 把握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은 인간 사이의 일을 다루는 社会學的 意味뿐 아니고 社会福祉的 意味를 갖게 되므로 住居의 問題는 社会化 되어야 하는 것이다.

첫째로 住居의 社会性이다.

人間生活의 영위는 家族形成에서 비롯되며 家族形成은 주로 結婚에 의해서 成立되는 家口形成의 土台가 되어 獨自的으로 家屋(house) 안에서 獨立的인 家庭(home)을 構成한다. 따라서 이 家屋은 人間生活이 始作되는 最初의 領域이다. 그런데 人間生活=人間的 活動은 社会的인 것으로 個人主義的 限界와 社会的 同調主義사이에서 人間相互간의 關係로서 나타난다. 이 社会的인 것이 顯勢化하는 곳이 바로 社会的 領域이다. 즉 社会的 空間이며, 이것은 社会的 影響權을 가진 心理的 空間이기도 하다.

따라서 社会的 空間의 基本單位로서 주거공간은 이러한 社会的인 것의 존재론적 기초가 되어 住居의 社会性의 母胎가 된다.

이 때 居住者가 社会的 形成体안에 어떻게 組織化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住宅의 意味는 다음 3 가지로 理解하여야 한다. 家族이라는 제 1次集團과 住宅, 職業集團 혹은 其他 所屬集團(제 2次集團)과 住宅, 1차와 2차의 양집단의 媒介역할을 하는 주택으로서의 意味이다.

즉 주택이 어떻게 1차집단의 결합력을 강화하고 가족의 親和를 增進시킬 수 있는가? 또한 주택에서의 개인을 分離시키는 2차집단의 作用에 대하여 주택을 休養 또는 心理的 安定이라는 補償작용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끝으로 1,2차 집단의 매개로서 또한 住宅內에서 創造的 作業을 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은 어떠한 기능을 가져야 하는가?

둘째로 住宅은 居住者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게 되는 의미에서 社会階層的이다.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의 外的 表現수단으로 주택의 상징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이때 住居는 하나의 生活시설과 기능물이라기보다 외관 및 형태로 표시되는 상징물이다.

셋째로 주거의 生存權的 意味이다.

의식주는 生活의 물적기초의 3대요소이므로 福祉

國家를 지향하는 現代의 各國은 生存權의 하나로 주거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유엔인권선언에서는 「人間은 주택을 包含하여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누림에 적합한 生活을 영위할 權利를 가진다.」고 밝혔고 北歐에서는 住宅証明 없는 結婚은 合法化되지 않으며 家賃이 밀린 入住者에게 어린이가 있으면 그들을 쫓아낼 경우 고발당함으로서 生存權의 하나로써 住居에 처한 權利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 憲法 30條에도 社会保障에 있어 住生活의 權利를 保障하고 있다. 이에 住居는 公害로부터의 解放 및 日照權과 함께 環境에 처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더 나아가 生存權의 구체적 對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 住居生存權은 公害解放權, 日照權, 生活근거권, 交通생활권과 함께 環境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4. 住宅-하나의 財貨

住宅은 建築資材라는 原料에 設計 및 施工이라는 勞動力과 資本을 投入하여 附加가치를 높이는 經濟活動으로서 建築生産의 最終生産物로 定義할 수 있다. 따라서 財貨로서의 住宅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非生産的이며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하나의 資本財가 아닌 消費財로 정의하고 있으며 經濟發展과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 개발경제학과의 견해인데 이와 달리 住宅至上主義者의 見解도 있으나 새로이 이 양자의 立場을 補完한 새로운 見解로서 다음과 같이 住居의 經濟的 意味를 提示하고 있다.

① 住宅은 所得을 創出할뿐 더러 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生産財다. 이것은 自家用 自動車의 경우와 같이 生産的 消費財이다. 따라서 消費性만에 의하여 一義的으로 規定되어지면 所得創出의 機能이 無視된다.

② 住宅은 高價의 資本과 오랜 耐久性을 가진 財貨이지만 이의 需要와 供給은 순수한 民間市場經濟體制에서 供給되는 彈力的인 것이 아니고 이러한 市場은 地域的 範圍가 需給에 決定的으로 作用하는 하나의 市場圈을 形成하며 政策的, 法的인 社会制度속에서 規制되는 非彈力体이다. 또한 適定한 供給量과 社会的 質을 유지하기 위하여 市場 價格을 支拂할 수 없는 消費者(=世帶)를 위하여 財政的 支援과 政府의 活動이 要請되는 經濟財이다.

③ 住宅은 固定된 土地와 이에 定着된 建物 뿐만 아니라 各種 便宜施設과 일체의 서비스와 함께 그 가치로서 供給되는 商品이다.

④ 住宅은 流通財로서 住宅在庫의 가치를 갖게 되며 이외에는 住宅交換市場에서 住宅이 資本財로서 賃賃세, 전세등으로 그의 用役만을 去來하는 市場

을 形成한다.

⑤ 住宅은 國家計에 대하여 貯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不動産으로서 安全한 資本 蓄積의 수단으로 認識되며 家計費上 住宅費比率은 임대주택의 경우 생활하는 저소득층에서는 家賃住居 費의 比重이 高所得層에 比하여 높아가는 Schwabe의 法則이 成立한다.

끝으로 住宅에의 投資性向은 重要한 經濟 指標로서 景氣動向의 판단자료로서 또 景氣調整手段 으로 評價된다.

5. 住居環境 - 人間行動의 決定 要素

住居는 住居生活環境 전체를 포함하는 概念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때 급수, 위생 전기 도로 등의 편의시설과 부대시설 및 학교, 보건소 등 공공시설의 주거생활요소가 포함된다. 주거환경문제를 포함하는 주택의 개념은 주거개념의 확장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택사업은 좋은 주거환경의 조성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게 된다.

그러할 때 주거환경요소는 땅과 집과 사람으로서 구성되며 이것은 생활환경으로서 自然, 人間, 社會, 空間, 流通系統과 함께 포함된다. 또한 생활환경은 생산 환경과 함께 人間環境을 의미한다.

住居와 環境과 人間의 相互關係는 어떠한 것인가를 環境決定論의 立場에서 보면 建築家가 住居를 計劃하고 設計하는 것은 人間/環境의 側面에서는 居住者의 行爲와 이들 爲行간의 關係를 空間的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配置속에서 人間의 各種行爲는 時間과 空間이라는 물리적 因子에 의하여 影響을 받게 되므로 物理的 環境設計가 人間行爲를 設計하는 結果가 된다. 이 때 인간은 건물뿐 아니고 여기서 발생하는 인간의 各種 行爲까지 經驗하게 된다. 즉 건축가의 환경창조가 변화의 원인이 되므로 그는 結果的으로 人間行動과 環境의 關係에 介入한다. 더 나아가서 環境을 創造함에 의해서 인간의 未來行動을 決定한다. 이때의 環境은 物理的 環境이상이며 社會的, 個人的 要素의 結合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인 고려와 이들 목표뿐 아니고 목표 달성을 위한 手段과 達成過程까지도 環境要素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環境을 구성하는 要素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場所와의 關係를 象徴的으로 表現하고 있어야 인간의 定住空間을 자신이 疏外되지 않는 固有性과 相互關係性으로 구성된 自己認識을 가지며 이러한 느낌이 人間生活의 意味를 부여하게 된다.

6. 高層住居 - 그 住居心理

우선 아파트등은 임시주거이며 단독 독립 주택만이 영구적 안식처라는 고정관념과 주거에 있어 自己顯示의 心理가 外的으로 制約을 받는다는 점이 高層 共同住居에 있어 心理的 障礙요인이다.

고층 주거에 있어 물리적 거리의 증가는 인간 사이의 사회적 접촉의 결여를 近接性的 결여가 가장 중요한 주거심리의 因子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복도나 계단, 에레비타가 침묵의 공간화하며 자신의 匿名性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주부는 어린아이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過敏과 不安感을 느끼며 이것은 아동의 자유로운 表現인 놀이를 금지시키며 실내에 유택하게 되고, 사회적인 친교의 단절로 인식발달의 障礙와 비사회적 행동을 조래한다.

또한 주거 형태의 단조와 同一한 外觀에 대한 심리적 反捲心을 감정발달과 자아인식을 障礙하며 청소년은 급기야 파피주의자가 될 수 있다. 이상의 격리감과 고층의 불안감, 아동의 심리발달의 障礙, 신체적 활동과 근원친교의 기회 결여가 주거심리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7. 政策手段으로서 住宅

주택은 경제개발과 같이 그 자체가 目標가 아니라 政策의 手段이자 目標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택은 넓은 의미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발전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있는 手段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에 의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며 사회안정과 사회복지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며 주택의 집단 건설은 지역발전을 유발하며 교육·보건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목표에 도달하는 효과적 수단이자 목표이다.

8. 住居의 意味의 變化

住居는 원시시대의 자연으로부터의 隱身処(shelter)로서 동굴에서 시작되어 農耕生活에 의한 定着을 하면서 삶의 터전으로서 인간의 定住文明의 기반이 되어 왔다. 이러한 住居의 定着的인 意味는 現代生活의 變化速度가 가지는 一時性에 의하여 臨時住居 또는 移動住居라도 形態로 바뀌어가고 社會解係 및 주거교환가치화에 의하여 더욱 가속되고 있다. 또한 産業化時代인 현대는 大衆의 出現에 의하여 대량생산과 대량보급이라는 住居價値의 修定과 住居의 構成要素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住居의 意味가 個人的인 것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社會的인 것 環境的인 것을 뜻하게 된다. 또한 生態論的으로 住居와 都市는 細胞와 生命體와의 關係와 같으며 이러한 有機體는 保存再生, 分比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단계로 進化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하나의 지도원리가 될 수 있다. 住宅은 시대를 통하여 항상 인간의 所望과 꿈이 구체화 되는 장소였으며 흔히 그 거주자가 가지는 時間과 空間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住宅은 인간의 정신으로 하여금 인생

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分別하고, 분석하고, 환상에 젖고 혹은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住居의 이미지는 人間의 精神에 위대한 영향력을 주며 이러한 의미에서 住居로 거주자에게 世上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생각되게 한다. 원시로부터 精神的 中心点으로서 기억되어 왔으며, 우리의 모든 기억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垆地와 住宅은 실제로 작은 世界이나 이 장소는 全 宇宙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야져 한다. 그 안에서 인간의 活動이 受容되어지면 총체적으로 그것은 生에 대한 態度를 表現하게 되는 때문이다.



참고서적

1. Charles Moore "The place of Houses"
2. Martin Pawley "Architecture versus House"
3. 조영무 "건축 도시계획론-1975"
4. 김 원, "우리시대의 거울"
5. 건축사협회 "건축사"
6. 주택은행 "주택금융"
7. 주택공사, "주택"

公 告

會員任들의 作品을 회지 建築士誌에 되도록 많이 収録코자 널리 그 作品을 募集하오니, 會員여러분의 많은 利用을 바랍니다.

특히 地方 特色을 살린 作品을 더욱 환영합니다. 論文, 散文, 趣味 等 會員코너도 마련되 있음을 알립니다. 會員諸位

물 자 절 약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일환책으로 협회와 각지도 지부 및 전 회원은 자율적으로 실천수범하자.

1. 수입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

협회 실시단 구성

